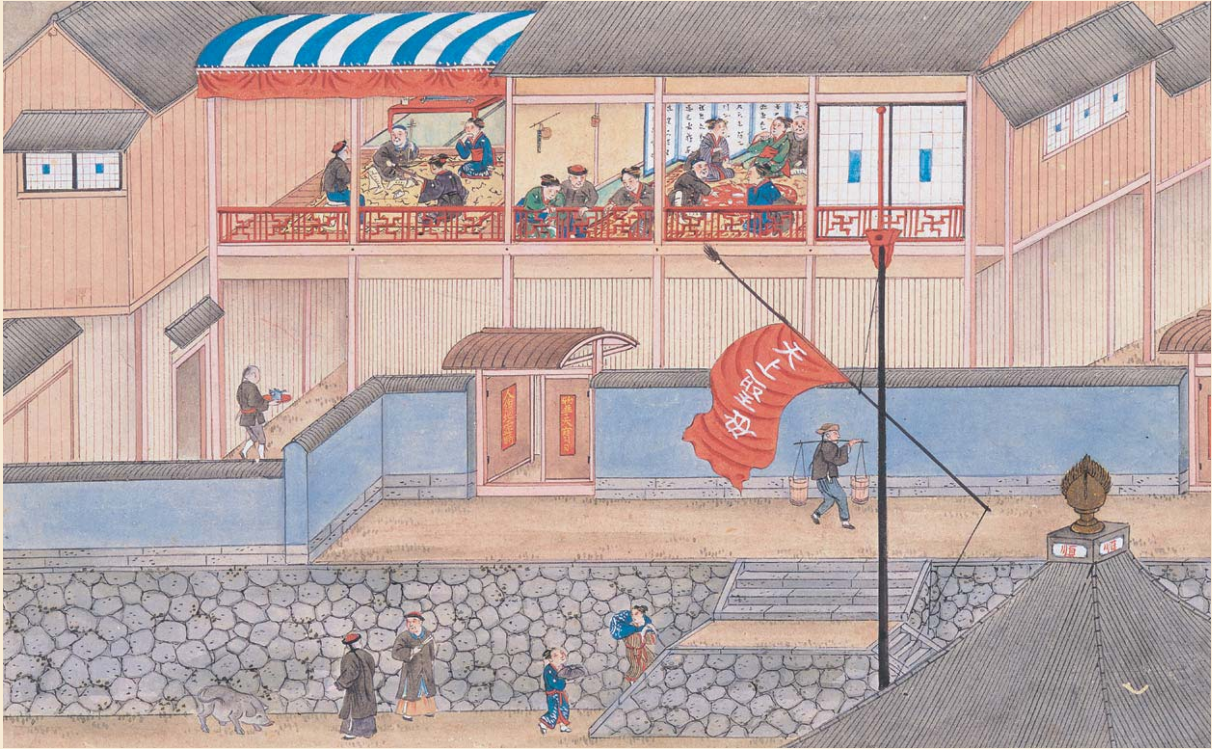


당인주거지에서의 생활 (문화교류)



당인주거지 기생 유흥도 (“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”의 일부), 카와하라 케이가 작품, 에도시대 후기 (19세기), (1권 지본착색 22.8cm×36.0cm)
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

나가사키 판화 · 당인주거지 방 그림, 야마토야 발간, 에도시대 후기(19세기), (1장 지본색인 34.0cm×25.0cm)
(주) 나가사키 문헌사 소장



명청악(明清樂) 연주 풍경을 그린 그림 (“당인주거지 두루마리 그림”의 일부), 작가 미상
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 소장

■ 당인주거지 기생 유흥 그림 (위 그림)

니노몬(二ノ門)을 통해서 당인주거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일본인은 기녀와 지역관리뿐이었습니다. 1737년에 당인주거지를 드나든 기녀의 수는 총 1만6913 명에 달했습니다.